

# Field Voice >>>

## KEPCO, 누적 적자에 해외사업 발목을 잡힌다.

한국전력은 최근 전기요금 3.5% 인상과 자체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해 5,000억~6,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 3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실적을 이어가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한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 해외사업 추진과 해외자금 조달시 그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신용등급이다.

현재 한전은 Mody's에서 A1, S&P에서 A, Fitch에서 A+ 등의 신용등급을 획득하고 있다. 만일 한전의 신용등급이 1등급 하락하게 될 경우 한전은 연간 600억원 가량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해외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시 비용증가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전의 신용등급이 하락될 경우 한수원을 비롯한 자회사들, 협력관계에 있는 대중소기업에도 연쇄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다. 일이 작을 때 미리 처리하면 적은 힘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힘을 들이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아무리 한전에서 자구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한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 에너지절약은 쿨(Cool)한 일상생활 위한 도구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 수요의 폭증으로 20일 전력사용량이 올 해 1월 기록된 6896만kW를 넘어 7,000만kW에 육박했다.

정부에서는 올 해 하계전력수급에 있어 7,070만kW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기준을 넘어 사용량이 7,400만kW에 근접할 경우 제한 공급조치도 내릴 계획인 가운데 이날 오후 2시께 순간 최대 전력수요는 7,015만kW를 기록했다. 휴가철이 끝나면서 산업용 전력수요의 증가와 전국적인 폭염으로 온도가 33~35도까지 치솟아 냉방기 사용량과 전국적인 폭염으로 온도가 33~35도까지 치솟아 냉방기 사용량이 1,467만kW에 달했다. 정운찬 前 국무총리는 8월 4일 전력수급현황과 대책을 살피기 위해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를 방문했다.

이날 정 前 총리는 “대학생 시절이었던 1960년대 후반에는 비교적 품질이 좋은 특선이라는게 있어서 하루에 만나질 정도만 공급되는 일반선이 있었다. 외국원서 복사본은 일반선 불빛 아래에서는 잘 안보여 특선이 깔린 친구 집에서 공부하곤 했다”며 “미국의 한 대학기숙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어컨이나 난방장치를 맘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어 “지금이야 값 싼 값에 고품질의 전기를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전기는 흔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에너지절약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때로 혹자는 에너지절약을 제5의 애국이라고도 한다”며 “에너지절약을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쿨(Cool)한 일상생활을 위한 도구로 해석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5의 에너지인 에너지절약에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전, 전선 도난범죄에 신기술로 대응

한전이 농촌지역의 전선 도난 방지를 위해 9월부터 기존 구리전선을 알루미늄 전선으로 대체한다.

한전은 기존 구리전선에 비해 생산원가가 약 70% 정도 절감된 저원가 알루미늄 전선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선 도난범이 전선을 훔쳐 되팔더라도 구리전선의 매각가치의 6%에 불과해 경제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전선도난 방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맨홀뚜껑 등을 훔쳐가는 생계형 범죄가 늘면서 농어촌 지역 전선 도난에 골머리를 앓아 온 한전은 전선절도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다.

한전 전선 도난 추이를 보면 1,998건(2007년), 2,266건(2008년), 761건(2009년)이 발생한 가운데 올 해 7월까지 362건이 발생했지만 절도범 검거 실적은 2007년 41건, 2008년 59건, 2009년 55건, 올 해 7월까지 27건에 불과했다.

알루미늄 전선 개발, 사용으로 농어촌 지역 전선 도난 방지는 물론 구매비용 절감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